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 신나는 노래 흥겨운 율동 푸짐한 상품

## 6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인천시 청소년회관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청소년 미술축제'를 5월 5일 개최한다. 청소년수련관(장수동 소재)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미술공연 전 저글링팀의 공과 링, 중국식 팽이 등을 가지고하는 각종 묘기와 저글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무료 관람. (032)440-6656

**독서 서울에서**  
세종문화회관이 마련한 '2007 서울을 빛낸 페스티벌'이 4월 27일부터 10월 5일까지 매주 금요일 총 24회에 걸쳐 열린다. 저녁 8시부터 공연되며 나무자전거, 노브레인, 여왕스케치, 라틴밴드 카리브 등이 공연한다. (02)399-1613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는**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가 열린다. 조경연출관, 화훼아이디어상품 전시회 등과 분재원, 허브동산, 아생화원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또 꽃꽂이 경진대회와 꽃그림 그리기대회, 글짓기 대회, 꽃꽂이, 리본 아트, 모스토피어리, 화분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5월 10일까지. 홈페이지(www.flower.or.kr) 참고.

**서울시 어린이예술마당에서는**  
아프리카 문화체험전이 개최된다. 전시체험, 우리가족 수호신 만들기, 전통 타악 연주 등으로 꾸며지는 이번 행사는 5월 31일까지 계속되며, 특히 4월 29일에는 한강 서래섬 축제 '아프리카 문화체험'이 펼쳐진다. (02)466-2606

**양주 조명박물관에서는**  
조명박물관의 이번 2007년 봄 체험학습으로 '청사초롱 만들기'를 준비했다. 우리나라 전통의 멋스러움을 가득 담은 한지와 문양으로 청사초롱을 꾸며 기념품으로 가질 수 있게 한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12시, 오후 1시~2시에 진행된다. 참가비 8천원. (031)820-8002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 '어린이 찬불율동제' 현장



시계방향으로 화계사, 정혜선원팀, 축하공연에 나선 아단법사, 진관사팀, 유가심인당팀의 공연이 찬불 율동제를 후끈 달궜다.

### 전국 16개 사찰 유치원, 초등학교생 300여 명 참여

"애들이, 연습했던 것처럼 하면 돼!" 4월 15일 서울 조계사 앞 유치원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300여명이 열여섯 개의 소속 사찰별로 모여 있다.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하 불레협)가 마련한 '어린이 찬불 율동제'에 참여하기 위해 조계사를 찾았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펼쳐진 제2회 어린이 찬불율동제는 그렇게 막이 올라가고 있었다. '불교 노래' 하면 왠지 조용하고 엄숙할 것만 같아 '율동'이라는 단어와 얼른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처님 노래 중에도 신나는 거 많아요!"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유치원생 민철이(7· 정혜사)의 말따라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즐거운 표정이다.

율동제는 불레협 회장 송묵 스님이 미소 띤 얼굴로 단상 위에 오르면서 시작했다. 스님은 25년 동안 어린이 포교에 힘써왔다. "어린이 여러분, 잘 왔어요. 여러분은 우리 불교의 보물입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모두 실천해 나가야 해요. 스님하고 약속합니다." 객석에서 "네!"하고 힘찬 대답 소리가 들리고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시작된다. 무대 의상으로 같이 입고 무대 뒤에 서자 아이들은 손을 가슴에 대고 풍광 뛰는 심장을 진정시킨다. 첫 번째 무대는 '우리가 꿈꾸는 사랑'이라는 노래로 율동을 한 조계사팀이다. 첫 순서인데도 실수없이 멋진 무대를 만들었다. 뒤이어 탑주심

인당팀은 촛불을 들고 등장해 객석의 호응을 얻었다. 또 능인선원팀도 발랄한 어린숙녀들이 화려한 공연을 보여줘 환호를 받았다. 같은 시간, 공연장 밖. 전통놀이마당과 솜사탕, 팝콘 등을 먹을 수 있는 간식마당이 특히 인기다. 점심시간이 되자 율동제에 참여했던 아이들까지 페이스페인팅을 하느라, 전통 놀이기구 만드느라 신이 났다.

다시 공연장 안. "맑은 하늘을 닮아 갈래요~." 웃으면서 살아갈래요"를 부르며 관음포교원 어린이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었다.

화계사 어린이들이 등장할 때는 사회자조차 "의상이 독특한 팀이 나왔어요!"라며 놀랄 정도였다. 풀과 벌, 나비 의상을 차려입은 어린이들의 모습에 관중 모두 박수를 보냈다.

다른 어린이법회팀의 공연을 지켜보던 회경이와 영복이(10· 봉은사 어린이법회)는 "우리는 의상부터 뛰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봉은사팀은 치어리더가 되어 무대에 섰다. 동작도 딱딱 맞아 떨어졌다.

아이들 축제지만 어른들의 축하무대가 빠질 수 없다. 불교계 난타 공연 '아단법사' 팀의 흔들고 차는 공연에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간은 다함께 즐긴 '어린이법회 지도 선생님 댄스 대회'였다. 앞 전하게만 보였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무대 위에서 몸을 내던질 줄이야.

모두모두 잘 했지만 아쉽게도 누가 더 무대 위에서 실수 하지 않았고 화합이 잘 되었는지 가리는 시간이 돌아왔다. 역시, 단합된 모습이 빛났던 봉은사 치어리더들에게 금상이 돌아갔다. 은상은 음원도 잘하고 공연도 잘한 유가심인당팀이 차지했다.

큰 상을 받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에게 이미상의 의미는 없다. 그저 율동제가 내년에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화찬이(10· 관음사 어린이회)는 "너무 재밌어서 매일 이렇게 율동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어요"라며 웃는다.

이번 율동제를 통해 아이들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 효정이(12· 봉은사 어린이회)는 "연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더 친해져서 좋았다"고 말한다. 또 한영이(11· 탑주심인당)는 "연습할 때는 무척 힘들었지만 끝나고 나니 해냈다는 생각에 보람있다"면서 뿌듯해했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다. 재관이(13· 봉은사 어린이회)는 "같은 노래가 세 번이나 나와서 조금 지루해질 뻔 했다"면서 율동 노래가 더 다양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상무(12· 탑주심인당)는 "우리가 더 신나는 노래를 통해 불교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거듭했다.

모두 함께해서 즐거웠던 율동제. 아이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 사랑'이 한 자락 더 펼쳐져기를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함께 바라던 순간이었다.

글·사진=김정진 객원기자



봉은사 어린이회.



유가심인당 자성학교.



화계사 어린이회.

### <찬불율동제 결과>

- |                 |                 |
|-----------------|-----------------|
| 금상: 봉은사 어린이회    | 보시상: 조계사 초등법회   |
| 은상: 유가심인당 자성학교  | 지계상: 육천암 어린이회   |
| 동상: 화계사 어린이회    | 인욕상: 관음사 어린이회   |
| 최우수상: 진관사 어린이회  | 정진상: 봉은사 어린이회   |
| 우수상: 능인선원 어린이회  | 선정상: 관음포교원 어린이회 |
| 장려상: 탑주심인당 자성학교 | 지혜상: 불광사 연꽃법회   |
| 정혜선원 어린이회       | 인욕상: 봉은사 어린이회   |
| 인기상: 정혜사 어린이회   | 보현상: 보리사 어린이회   |

## 금강 경전

## 금강 경전의 이해



**천수경**    가격    ₩ 9,800

-사이즈: 13.5cm x 20cm

부처님 말씀을 실은 경전은 소중한 이룰 데 없지요. 예전엔 경전 얻기가 어려워 줍니다. 금사경을 하면서 까지 경전에 대한 경외심이 지극하였으나 오늘날은 일반서적 발행하듯이 쉽게 부처님 경전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안타깝기 이를 데 없나이다. 이에 미력하나마 우리 불자님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경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르침에 따라 모든 불자님께서 수행 정진을 하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경전을 편찬케 되었습니다.

천불산 성불사 如松 스님 승掌

**아미타경 : 장엄염불 5월 10일 출간예정**

**경전 전체를 금강**

우리 한지를 사용하여 금강 도금 전례 묵음책자로 발간



**금강경**

- |     |                           |                            |
|-----|---------------------------|----------------------------|
| 구입처 | 순천(금강각)    T.061-755-4879 | 대전(우리불교) T.042-256-7879    |
|     | 서울(우리불교) T. 02-597-7879   | 광주전남(행복한세상) T.061-374-4948 |
|     | 부산(도감선원) T.051-336-5890   |                            |